

사람이 보석이 되는 '익산' 공직사회 청렴 문화 정착

문화도시조성계획 '본캐도'... 법정 지정 온힘

익산시는 역사와 문화를 심는 전국 유일 보석 '법정 문화도시' 조성 계획이 본격 추진된다



시는 지난 8일 통합 전수교육관에서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개최해 법정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심의·의결하고 법정 지정을 위한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성재환 문화도시추진위원장 주재로 오택립 부시장, 원광대학교 조경학과 김상욱 교수, 익산학원연구소 임승배 교수, 익산문화원 이재호 원장, 희망연대 류종일 대표 등 관련

전문가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정 문화도시 조성계획은 사람이 보석이 되는 살고 싶은 문화도시 익산 비전을 토대로 도시조성계획 심의가 진행됐다

도시 전체에 문화적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문화도시 실행 전략 심의와 함께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발전

과제를 논의했다.

주요 조성계획은 ▲도시와 역사의 재인식 ▲시민주체 플랫폼 구축 ▲문화도시브랜드-보석문화도시 ▲문화도시생태계 구축으로 4개 방향으로 추진된다. 도시의 문화와 역사를 재인식하여 익산의 도시 정체성을 세우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도시의 주체가 되는 문화 자치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보석문화도시는 '익산 사람'에 대한 존중과 익산이 가진 문화를 공예, 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가치를 추구하며 문화도시의 지속성을 가능하게 하는 12개 사업전략을 세웠다. 주요 사업으로는 익산학 시민문화학교, 문화도시 삼삼오오, 문화마을20, 보석관광 프로젝트, 문화도시 거점공간 조성, 문화도시 세대연결 등이다.

/*익산=이득훈 기자

익산시, 코로나19 물품 배송 전문서비스 추진

자활기업과 배송서비스 업무 협약... 확산 방지 위한 당일 비대면 배송

익산시가 자가격리자와 재택치료자의 편의성과 코로나19 대응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물품 배송 전문 서비스를 추진한다

시는 9일 좋은세상만들기(대표 소선호), 주식회사 모뎀(대표 오주영) 등 2곳과 자활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자가격리자와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물품 배송 전문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가격리자와 재택치료자에게 배송되는 물품은 격리통지서, 위생 물품과 생수를 포함한 식품이다. 그동안 통지서와 위생물품은 보건소가, 식품은 기획행정국 직원과 시민안전과가 각각 배송해왔다

위생물품과 식품이 각각 배송되다 보니 배송 시기가 달라 배송되지 않은 다른 물품의 배송 시기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고 자가격리자가 급격히 증



익산시가 자가격리자와 재택치료자의 편의성과 코로나19 대응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물품 배송 전문 서비스를 추진한다.

가하면 물품 배송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자가격리자가 많은 불편을 겪기도 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자가격리자와 재

택치료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코로나19 장기화와 대응 관련 업무 추진으로 공무원들의 업무와 피로도도 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익산=이득훈 기자

군산시의회, 2021년도 예산 1조6426억4800만원 확정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2021년 결산추경 예산을 1조6,426억4,800만원으로 확정했다

시의회는 9일 제242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최종예산을 확정하고 25건의 부의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제3회 추경인 1조6,455억7,900만원보다 29억 3100만원이 감액된 1조4,209억4,8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로 최종 확정했다

우종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결산추경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인 만큼 지역 현안해결 및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예산과목별 사업취지와 기대효과 등을 꼼꼼히 살폈다"며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편성된 사업들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여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10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2년 본예산 심의를 거쳐 20일 제242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시, 민선 7기 청렴도시 단위 전국 '최고등급'

익산시가 올해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고등급을 받아 정한을 시장 취임 이후 역대 최고 성적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정현을 호 출범 이후 도내 최초로 독립적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공직 사회 강도 높은 청렴정책을 추진한 결과 전국 최고의 깨끗한 청렴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9일 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주관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내·외부 청렴도 2등급,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아 역대 최고 성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시 단위는 1등급이 없어 2등급이 최고등급으로 평가되면서 전국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셈이다

분야별 점수를 살펴보면 외부청렴도 평가 항목인 부패경험 8.23점(전국 시 평균 7.92점), 부패인식 8.85점(전국 시 평균 8.69점)이었으며, 내부청렴도 평가 항목인 청렴문화 8.09점(전국 시 평균 7.30점), 업무청렴 8.35점(전국 시 평균 7.62점)으로 4개 항목 모두 전국 시 단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외부청렴도는 지난해보다 3등급이나 대폭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금품 수수 경험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돼 부패경험 점수(5.86점→8.23점 ▲2.37)가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한 것이 주요했다

익산시 업무처리에 대한 부패인식 점수도 전년도와 같이 상승세를 유지했다

익산사에서 민원 등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평가한 외부청렴도 점수는 지난해 7.19점에서 올해 8.47점으로 대폭 상승하며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 기반을 마련했다

내부청렴도의 경우 지난해 2등급 평가를 유지하면서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에 더욱 박차를 가한 결과 7.81점에서 8.23점으로 크게 상승했다. 지난 3년간 인사분야 금품·향응·편의의 수수 사실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정현을 시장이 임기 중 지속적으로 강조한 청렴한 인사행정이 실현되었다는 평가다

정현을 시장은 취임 직전인 지난 2015년 종합청렴도 5등급에서 6년 만에 전국 최고등급으로 올려놓으며 공직사회에 청렴한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성공했다

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를 도입해 고강도 청렴 특별대책을 추진해왔다

감사위원회 전 직원을 투입해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사 현장 비리 및 부적절한 관행을 근절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했으며 공무원의 갑질, 불친절 등 시민들의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해소해왔다

또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연 2회(상·하반기)로 확대 실시하여 고위직의 솔선수범을 유도하며 그간 정체되어 있던 내부청렴도 향상을 견인했고, 간부·중간관리자 실무담당자 등 분야별로 내실 있는 맞춤형 청렴 교육을 실시하여 청렴한 공직문화 풍토를 탄탄하게 다졌다

정현을 시장은 "그동안 공직사회 청렴문화 향상을 위해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한 결과 전국 최고등급을 받으며 청렴한 도시로 거듭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익산=이득훈 기자

지역 소식통

정현을 시장, 코로나 확산 대비 긴급 담화문 발표

정현을 익산시장은 9일 오전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고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3차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를 호소했다

이는 단계적 일상회복(11.1) 이후 총 189명의 확진자 68명이 백신 미접종자 약 36%에 달해 이에 따른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한 것이다

정 시장은 "또다시 방역 조치가 강화돼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으셨던 소상공인과 지역업종사자들이 다시 경제적 위기가 직면하게 돼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일일신규 확진자가 언제든지 급증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특단의 조치를 함께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시는 12월 한달동안 특별방역 대책을 시행한다. 먼저 백신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사적 모임은 8명까지 제한된다. 코로나19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이 늘어난다

/*익산=이득훈 기자

군산시 2022년 하수도 사용자료 25% 인상

하수도 사용료가 오는 2022년 25% 인상된다

군산시는 하수도가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하수도 요금을 매년 25%씩 인상하고 있다

다만 2021년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용 용량용 수용가에 대해 '21년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1년 유보했으며 오는 2023년까지 인상된다

지난 2018년 당시 군산시 공공하수도 사용자료 현실화율이 22.8%로 전국평균 현실화율 45.9%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에 행정안전부의 권고와 의회 동의를 거쳐 하수도 사용자료 현실화율을 6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2022년도 업종별로 인상되는 요금은 가정용의 경우 월 20톤까지 톤당 655원에서 820원으로 인상되며, 일반용은 월 30톤까지 톤당 760원에서 950원으로 인상돼 올해보다 25%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 1월 고지분부터 청구된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 수산물종합센터 건설팅으로 새로운 도약

군산시가 수산물과 관련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수산물 전용시장으로 입지를 다져 온 군산수산물센터는 지난 2008년 10월에 개장해 전통시장(인정시장)으로 등록돼 있다

1층에 선어, 건어, 대매(조기, 갈치 등 도소매), 활어를 판매하고 있다. 2층에는 10여 개의 횡집에 400석 이상의 좌석이 준비돼 있지만 건물 노후화로 인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연면적 3,999㎡(3층) 규모로 수산물종합센터를 신축 중이며 오는 2022년 가을 신규 개장을 예정하고 있다

신규 개장을 앞두고 군산수산물센터를 원도심 부흥을 주도하는 중심

시장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시는 컨설팅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이다

시는 먼저 생산자·소비자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상인과 소비자 약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했으며 지난 10월에는 CS(고객만족) 전문강사를 초빙해 군산수산물센터 상인을 대상으로 상인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소비자 지향형 군산수산물센터 조성을 위해 조례 전면 개정을 통한 체계적인 입점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상인회와 함께 공동 변영을 추구하는 선도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상인의식이 투철한 상인을 입점시키고자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심사를 계획하고 있다

/*군산=한경봉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